

한국에서의 교회의 장래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성도의 벗 기자: 한국과 일본 지역 담당 총관리 역원 지역 관리자로서 이 지역의 교회를 관리하고 인도할 책임을 맡고 계시는 입장에서 한국에서의 교회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꾸찌 장로: 대관장님은 전부터 종종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합당한 남자 회원은 인종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신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우기 대관장님을 비롯해서 총관리 역원들이 한국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깊이 느낍니다.

나는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며 강하게 되어 십일조의 법, 금식의 법, 또한 더 높은 율법인 헌법의 법 등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신앙을 가져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1975년 4월 4일,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천 7백만 인구나 7,500명(현재 13,000

명)의 회원이 살고 있는 한국에서 한국 성도들이 모두 선교 사업을 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현재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백 명의 복음 선교사를 북한으로서는 물론 어쩌면 소련에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김볼 대관장님이 큰 기대를 걸고 계시는 일을 성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각자가 대관장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긴 안목으로 내다보신 일을 인식하고 자신의 구원과 승영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좀더 깊이 인식하며 우리의 신앙 생활과 그러한 일의 상호 관계를 잘 알고 성도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완전한 스테이크가 빨리 곳곳에 조직되어야 합니다.

모로나이서 10장 31~3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깨어나 티끌에서 일어나라...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너의 말뚝(스테이크)을 견고하게 하고 그 경계를 넓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워드가 발전하여 스테이크가 되고, 또한 참으로 선교부가 강화되고 지방부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와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비하심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성결케 되고 자비하심을 입으며 세상의 더러움을 없애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시온)의 장막터를 넓히며… 너(시온)의 줄을 길게 하며 너(시온)의 말뚝(스테이크)을 견고히 할찌어다” 즉 사랑의 줄, 신앙의 줄로써 스테이크를 견고하게 세우도록 합시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정결하게 되어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되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만물의 소유자가 아니니라,

…만일 너희가 정결하게 되어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되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교리와 성약 50편 28~29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진실로 정결하게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이 온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천한다면 이 아름다운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한국에는 멀지 않아 멕시코와 같이 또는 그 이상으로 교회가 발전되고 강화되리라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날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은 온 몸과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열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주님의 사업을 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는 지금부터 3년 내지 5년 안에 20~25개의 스테이크가 조직되도록 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온이 건설될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두 스테이크, 즉 서울 스테이크와 서울 서 스테이크가 각기 6개 정도로 분리되어 모두 16개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인천 스테이크, 대전 스테이크가 생길 것이며 부산에는 4개 정도의 스테이크가 생기고 광주 스테이크도 조직되어 둘로 분리되며, 대구 스테이크도 조직되어 둘로 분리되며, 경주 스테이크, 마산 스테이크, 목포 스테이크, 울산 스테이크, 순천 스테이크, 수원 스테이크 등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선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회원 한 명이 반드시 1명 내지 3명 이상의 친구나 친지나 친척을 1년에 한번만이 아니라 2번, 3번 소개함으로써 이같은 목표가 달성되어 아름다운 나라에 많은 스테이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벗 기자 : 장로님이 존경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기쁘쨌 장로 :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살아 계신 예언자인 킴볼 대관장님을 사랑합니다. 겸손한 생활 태도와 큰 비전을 갖고 계시며 안이한 세상 일에 타협하지 않으시는 킴볼 대관장님을 마음을 다해 존경합니다.

성도의 벗 기자 : 장로님의 신조와 젊은이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쁘쨌 장로 : 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믿읍니다. 올바

르게 기도로 결정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신조입니다. 나는 이러한 신조를 갖고 모든 일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특히 교회의 젊은이에게 권고합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회원으로서 계명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행할 것이며, 어떠한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직업을 선택하십시오. 일단 결정한 일은 꼭 수행해야겠다는 의지와 열의와 신앙을 갖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하고 매일 매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서 으뜸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에서 뛰어난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이 일을 꼭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벗 기자 : 끝으로 장로님의 간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장로 : 나는 지금도 자신이 교회의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그러나 대관장님은 “하나님께서서는 계시로써 내게 형제님을 부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형제님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생명을 바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한국인을 사랑하시며 또한 아시아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큰 기대와 희망

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서 봉사하고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용서와 도움을 구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전국 방방 곡곡에 하나님의 왕국이 흔들림 없이 굳건히 건설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다한 협조와 스테이크 선교부와 지방부 역원에 대한 지지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우기 보다 적극적인 의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함께 일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축복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업은 더욱 활발히 행해질 것입니다.

김볼 대관장님이 당시 십이사도 평의회 의 일원이었을 때 시온의 스테이크를 조직해 주셨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다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을 행합니다. 많은 스테이크를 세우도록 힘써 일합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한국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부부가 자녀와 함께 신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멀지 않은 일본에 새로운 신전이 건립되면 어떠한 남편도 자기에게 그의 아내와 자녀가 인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변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 ☆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서울 서 스테이크는 1978년 8월 26, 27 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제 6 와드에서 1978 년 3/4분기 스테이크 대회를 지역 대표인 아서 케이 니시모도 장로를 감리자로 모시고 가졌다.

26일 토요일 4시 30분부터 가진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니시모도 장로는 전세계의 교회 조직 현황을 참석한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교회는 모든 조직을 통하여 급성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른 조직상의 변경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가진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는 비회원 및 새로 개종한 회원과의 우정 증진이란 주제로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은 "선교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요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스테이크의 모든 회원은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하여 회원의 우정을 증진시키고 현재 임명된 56명의 스테이크 선교사를 100여 명으로 늘리고 보다 많은 복음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스테이크 방침을 발표하면서, "우리 모든 회원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도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27일 일반 총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있었다.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중 가장 많은 회원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3명의 대제사, 2명의 칠십인, 15명의 장로가 탄생되었으며 3명의 새로운 고등평의원이 부름을 받았다.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은 "성도들의 사명"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행실의 열매를 훌륭히 거두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이어서 인천와드 소속 이 회경 자매



말씀하는 니시모도 장로와 통역을 맡은 이 남선 부장

는 "교회 안에서의 결혼"에 대하여, 스테이크 부장단 제 2보좌 이 남선 형제는 한국 지역 공보 책임자로서 물론이 인류 문화에 기여한 업적을 구체적인 사람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고, 제 1보좌인 김 차봉 형제는 성도와 속인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양심에 있음을 설명하면서, 모든 성도는 이를 올바르게 행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니시모도 장로는 우정 증진을 통한 회원간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이 바로 우리 회원들이 해야 할 우정 증진이라고 강조하셨다. 이번 대회의 참석 수는 1481명으로 스테이크 회원의 38%의 출석률을 보였다.

신권 역원을 지지하는 서 스테이크 성도들



마산 지방 대회

지난 8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마산 삼성 빌딩에서 회원 1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 호남 부산 선교부장의 감리로 제 9차 마산 지방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방부장단의 개편이 있었는데 윤 덕병 지방부장이 해임됨과 동시에 박 청정 형제와 함께 평의원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 상운 형제가 마산 지방부장직에 부름을 받았으며 김 만금 형제를 제 1보좌로 불렀다.

우 상운 형제는 지방부 회원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크게 헌신할 것을 당부하였고, 이어서 이 호남 부산 선교부장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자는 일상생활 가운데 되풀이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며 실패한 자는 되풀이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해야 할 일은 꼭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멀리 진주 지부에서 맹인 구도자가 참석하여 이채로운 분위기를 가운데 훌륭한 영적 모임을 가졌다.

100주년 기념 행사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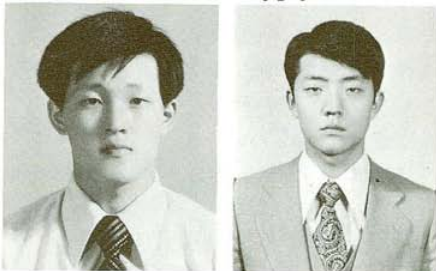


서울 스테이크 2명의 선교사 출발

지난 8월 5일 서울 스테이크 제 4와드 소속 이 재갑 형제와 상계지부 소속 최 경환 형제가 최 옥환 스테이크 부장의 안수를 받고 임지인 부산 선교부로 떠났다.

이 재갑 장로

최 경환 장로



서울 스테이크 초등협회 100주년 기념 행사

서울 스테이크는 지난 8월 26일 제 1와드에서 초등협회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최 옥환 스테이크 부장 감리하에 가진 이날 기념 행사는 각 와드와 지부에서 초등협회 어린이들이 음악, 무용, 합창, 연극 부문에서 그동안 닦은 풍성한 재능을 발표하였다.

최 옥환 스테이크 부장은 말씀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기도로써 구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생활을 하자”고 강조했다.

행사는 경건 프로그램과 재능 발표의 순서로 나누어서 갖고 100주년을 기념하는 생일 케일을 잘라 두었다가 식이 끝난 후 일일이 나누어 먹기도 했다.

이날 모임에는 300여 명의 어린이와 부모와 신권 지도자가 참석했다.

십이사도 정원회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서거

지난 28년 동안 십이사도로써 봉사해 온 델버트 레온 스테이플리(81세) 장로가 8월 19일 자택 근처에서 산책 중 심장마비로 서거하였다.

장례식은 8월 22일 솔트레이크 태버네클에서 개최되었으며, 대관장단이 조사를 행했고 에스라 태프트 벤슨 회장, 마크 이 피터슨 장로가 기도를 올렸다.

장례식에는 대관장단과 고인의 부인 에델 자매와 가족 친지 및 총관리 역원이 참석하였다.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은 그의 투철한 사명감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했다.

“스테이플리 장로는 18세 때 메이저 리 그 야구 선수로 발탁되었으나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기꺼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그의 전생애 동안 일관되어 왔다.”

스테이플리 장로는 1896년 12월 11일 아리조나주 메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5년에 메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고인이 된 십이사도 정원회의 칼스에 이 칼리스 선교부장 아래서 선교사를 마쳤다.

그는 1918년 1월 14일 에델 자매와 솔트

추도식에 참석한 성도들



고 스테이플리 장로

레이크 신전에서 결혼하였다.

1926년에 그는 마리코파 스테이크의 고등평의원이 되었으며, 1957년에는 피닉스 스테이크 부장이 되었다. 1960년에 그는 십이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의 유족으로는 부인 에델 자매와 세 자녀와 두 형제와 두 자매 그리고 8명의 손자와 17명의 증손자가 있다.

스테이플리 장로의 유해는 아리조나주 메사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다.

김 호직 형제 19주기 추도식

지난 8월 30일, 망우리에서 고 김 호직 형제의 19주기 추도식을 가족 친지 그리고 한 인상 지역 대표, 양 스테이크 부장단과 하킨스 서울 선교부장 및 교회 역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가졌다.

이날 추도식은 서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인 이 남선 부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고인의 약력 소개가 있었고 교회 초기에 선교사를 마치고 현재 서울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는 하킨스 선교부장의 말씀을 들었고 이어서 한 인상 지역대표 그리고 끝으로 김창선 서 스테이크 부장의 말씀이 있었다.

신권 지도자들은 말씀에서 이땅에 참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신 고 김 호직 형제의 공적을 치하하고 그분의 훌륭한 모범을 사표로 삼아서 교회 발전에 충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